



임준택 수협중앙회장, 노량진수산물시장서 물가동향 점검
13일 수협중앙회에 따르면 2일 임준택 수협 중앙회장이 홍진근 수협 대표와 김진균 수협은행장을 비롯한 임원진과 설 명절을 앞두고 수협 노량진수산물시장을 찾아 수산물 수급 동향을 살피고 유통 종사자들을 격려했다. 임준택 수협중앙회장(오른쪽 첫번째)이 지난 12일 노량진수산물시장에서 수산물 판매장을 둘러보고 패류를 직접 구입하고 있다. /수협중앙회

Sh수협은행, 수협 조합과 동반성장 모색

수협-상호금융 상생발전협 운영

Sh수협은행이 수협 회원조합과의 동반성장을 위해 '수협은행-상호금융 상생발전협의회'를 신설·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수협은행 경영전략그룹 수석부행장을 비롯한 주요 부서장과 수협중앙회 상호금융부장 등이 참여하는 상생발전협의회는 앞으로 매월 한차례 모임을 갖고 ▲수협은행과 회원조합간 공

동마케팅 방안 ▲회원조합 디지털금융 확대 ▲비이자 수익원 공동개발 ▲사회공헌활동 공동 추진방안 등을 논의한다.

김진균 은행장은 지난해 11월, 취임사를 통해 "어업인과 회원조합을 지원하는 협동조합은행 본연의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상호금융 사업과의 동반성장을 위해 은행이 선도적 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교보생명, 미얀마에 코로나 진단키트 기부
교보생명은 미얀마 보건체육부(MOH S·Ministry of Health & Sports)에 코로나19 신속진단키트 5000명 분량을 기부했다고 13일 밝혔다. 교보생명은 지난 6일 미얀마 수도 양곤에서 (왼쪽부터) 김진수 주미얀마 한국대사관 상무관, 윤승철 교보생명 양곤주재사무소장, 함정환 주미얀마 한국대사관 공사, 조탄톤 미얀마 보건체육부 의학연구소 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달식을 진행했다. /교보생명

홈앤쇼핑, 中企 협력사 이익공유 나선다

(주)에이블루에 마케팅비 등 지원

홈앤쇼핑이 중소기업 협력사를 위해 이익 공유에 나선다.

홈앤쇼핑은 디자인 제품 전문브랜드 ㈜에이블루에 마케팅 및 디자인 개발비 4500만원을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를 위해 이날 서울 강서구 홈앤쇼핑 본사에서 김옥찬 대표, 이명욱 에이블루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신상품 디자인 개발비 전달식을 가졌다.

이번 지원은 지난해 10월 에이블루와 맺은 파트너십 협약의 일환으로 진

행했다. 특히 이번 지원은 코로나19로 경영 환경이 악화된 중소기업과 이익을 공유하는 첫 사례로 의미가 있다. 홈앤쇼핑은 향후 이익 공유를 통해 중소기업 파트너사들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메가브랜드 아이템을 육성·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에이블루의 자세교정의자 커블체어는 2019년 홈앤쇼핑을 통해 TV홈쇼핑 최초로 론칭하며 홈쇼핑 스테디셀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김승호 기자

맥도날드, LCK 공식 스폰서십 체결

맥도날드가 '리그 오브 레전드(LoL)'의 한국 프로리그 '2021 LoL 챔피언스 코리아(LCK)'의 공식 스폰서가 되었다고 13일 밝혔다.

맥도날드는 2021년 LoL 한국 프로리그를 주최하는 LCK와 파트너십을 맺고 국내 최정상 e스포츠 리그로 자리

잡은 LCK를 공식 후원한다. 이번 후원사 중 QSR 브랜드는 맥도날드가 유일하다. /조효정 기자 princess@



“벤처 생태계 위해 대기업 의지변화 절실”

안건준 벤처협회장, 새해 정책방향 대기업-벤처 간 생태계 결합 강조 불공정 행태 근절의지 표명·실천을

안건준 벤처기업협회장이 벤처 생태계의 획기적인 전환을 위해 삼성을 중심으로 한 대기업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특히 삼성을 이끌고 있는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한 대기업 오너들의 의지 변화가 어느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안 회장은 13일 밝힌 벤처기업협회 2021년 정책방향에서 “대한민국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선 강점과 상호 보완성을 가진 대기업 생태계와 벤처 생태계의 결합이 중요하다”면서 “대기업 생태계의 불공정 갑질행태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진정한 의미의 상생 생태계를 완성하기 위해선 대기업 오너의 확고한 근절의지 표명과 이를 진정으로 실천하는 대기업 오너의 자세가 유일한 해법”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에서 삼성을 포함해 100여 개 대기업 집단이 핵심시장을 장악하고 있고, 이들 관련 기업만 1만여 개 정도로 벤처 생태계와 대기업 생태계가 다방면으로 연결돼 있다고 언급하면서.

안 회장은 2018년 여름, 벤처기업협회가 제주에서 연 벤처썸머포럼에서도 ‘한국형 혁신생태계’를 강조하면서 기업 경영의 책임과 영향력이 막강한 대기업 총수들에게 공정한 생태계를 논의하자며 ‘러브콜’을 보냈었다.



안건준 벤처기업협회장. /벤처협회

안 회장은 “대한민국의 대기업 생태계에서 차지하는 삼성의 영향력과 함께 최근 진정성있게 변화하는 상생의 자세는 100여 개의 대기업집단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면서 “최근 삼성의 변화를 위한 노력이 과거와 확연히 다른 점은 세계 무역분쟁의 난관타개와 삼성의 미래 글로벌경쟁력에 대한 위기감에 의한 자발적인 움직임인 동시에 이는 과거 누구보다도 대기업의 자기중심적인 나쁜 행태에 비판적이었던 혁신벤처업계가 현장에서 체감하고 있는 큰 변화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안 회장은 이달 초 벤처기업협회장 자격으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다

그는 “탄원서를 낸 것은 온전한 한국형 혁신벤처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선 삼성의 오너인 이재용 부회장의 확고한

의지와 신속한 결단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라며 “이 부회장에게 과거 약속의 고리를 끊고 우리 경제의 위기 돌파와 재도약에 기여할 기회가 주어지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안 회장은 크루셜텍을 창업하기 전에는 삼성전자 기술총괄본부에서 선임연구원을 거친 바 있다.

안 회장은 “그동안 대기업의 불공정 갑질행위가 근절되지 못한 이유는 당대 대기업 오너의 확고한 변화 의지가 부족했기 때문”이라며 “단기적 실적에 급급한 전문경영인과 관련 임직원들은 수많은 중소벤처기업과 협력사들에게 법망을 피하는 수준에서 모든 방법을 동원, 갑질에 가까운 불공정 행위를 서슴지 않았다”며 다시한번 대기업 오너들의 적극적인 자세 변화를 희망했다.

안 회장은 한 차례 연임하며 지난 4년간 맡았던 벤처기업협회장 자리를 내달 내놓는다.

그는 소회에서 “한국형 혁신벤처생태계를 만드는 데 앞장서고 정부에 벤처업계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등 바쁘게 움직였고 투자 환경과 법·제도 개선, 창업에 대한 사회 인식 개선 등 눈에 보이는 진전이 있어서 보람을 느낀다”면서 “기업인으로서의 중국과 사드 갈등으로 촉발된 위기, 미·중 무역분쟁, 일본의 수출규제 등으로 인해 어려운 시기를 겪었는데 앞으로는 벤처기업의 대표로서 기업 운영에 전념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SK머티리얼즈, 독거노인 위해 도시락 전달

‘한끼 나눔 온택트 프로젝트’ 추진 영주지역에 도시락 300인분 전달

SK머티리얼즈가 지역 독거노인에 따뜻한 식사를 전한다.

SK머티리얼즈는 경상북도 영주 지역 독거노인 300여명에 도시락을 무료로 배달하는 ‘한끼 나눔 온(溫)택트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이 프로젝트는 최근 코로나19로 무료급식소 운영 중단 등에 심각한 독거노인 결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준비됐다. 취지에 공감한 영주시청, 영주시의회, 영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경북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영주 택시기사 봉사단 ‘사랑실은 교통 봉사대’, 사회적 기업 ‘소백로컬푸드’ 등 다양한



지난 3일 ‘한끼 나눔 온(溫)택트 프로젝트’ 협약식을 열고 (왼쪽부터) 소백로컬푸드 장성희 대표, 경북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정동의 사무처장, 영주시 장욱현 시장, SK머티리얼즈 박기섭 생산본부장, 영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조훈 공동위원장, 사랑실은 교통봉사대 김중대 영주지대장이 기념사진을 하고 있다.

이해관계자들도 동참한다.

재원은 구성원 성금과 회사 기금으로 조성된 ‘행복나눔성금’으로 마련했다. 지역사회 보장협의체와 경북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의 추가 재원도 보

탠다.

SK머티리얼즈 등 단체들은 이를 통해 1만8000여식의 도시락을 영주지역 독거노인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김재용기자 juk@

인사

- ◆한국관광공사 ◇상임이사 선임 △국민관광본부장 노점환
- ◆신한금융투자 [신임] ◇지점장 계약박진성 ◇부서장 △결재업무부 조경희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감사부장 조용철

부음

- ▲오우현(신한포남서울교회 전 실장)씨 별세, 오원호(뉴욕JP모건)·문길(풍산그룹 흥

- 보팀장)·혜성(광주)씨 부친상, 최동호(광주 다독다독도서관)씨 빙부상, 이애숙(미국)·여상현(북서울미술관)씨 시부상=13일, 서울강남성모병원 장례식장 2호실, 발인 15일 오전 7시, 장지 문막 충효공원묘원
- ▲이복순씨 별세, 서상호(서예가)씨 부인상, 서양선·서희선(LG헬로비전 센터장)·서영경(위드정보 이사)·서혜선(대진대 교수)·서대경(플렉스플레이코리아·식객촌 대표 이사)씨 모친상, 김구·강기준·조현래(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장)씨 장모상=13일 오전 7시,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특실 2호실, 발인 15일 오전 5시, 장지 전북

- 고창 선영
- ▲박화석씨 별세, 박정대(ubc울산방송 이사)·박정일(서경산업건설 대표)·박정열(에이오메드 대표)·박정란·박정선씨 부친상=13일 오전, 국립중앙의료원 301호, 발인 15일 오전 6시 30분
- ▲장성찬씨 별세, 서정성(신한금융투자 대체투자1본부 전무)씨 장인상=13일, 서울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3호실, 발인 15일 오전 8시 서울 추모공원 승화원
- ▲김효연씨 별세, 조운래(맥키스컴퍼니 회장)씨 장모상=12일, 대구 수성구 한패밀리병원장례식장 3호실, 발인 14일 오전